

제428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0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2
 -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심사 분량이 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후에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식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시정요구사업에 대해서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에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위자료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에 대하여는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별도 보고 없이 자료로 대체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 수용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에 이견도 있고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8분)

○소위원장 전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요구유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정부에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 연번 5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중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의 연례적 이·전용 발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도개선 또는 주의 또는 시정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청에 대한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장직무대리,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직무대리 박상옥**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연례적 이·전용이 반복되어 온 점을 감안해서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 제가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금방 시정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 논거로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있으니까 시정으로 해 달라 이게 맞나요? ‘연례적인 이·전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지, 연례적이니까 시정해 달라 그것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직무대리 박상옥** 죄송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 뭐 계속 연례적으로 이·전용하겠다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직무대리 박상옥**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앞으로 저희 사업 관리 잘해서 이·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속기에 다 남거든요. 그러면 청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직무대리 박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추징, 회수, 원상복구 또는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따르는데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부에서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직무대리 박상옥**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

○**김희정 위원**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하거나 회수하거나 원상복구하거나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치를 정부 측에서 원한다는 말은 이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정하고자 하는지 그 계획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직무대리 박상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할 때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해서 보조금 집행 현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료가 사전에 배포돼서 저희들이 한 번 1회독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오늘 아침에 보기 시작했는데 이견이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이라든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라도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 위원님이,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한다 그걸로 끝. 그 의견이 맞는지 또 정부의 수용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저희들이 아무리 바쁘지만 간략하게나마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사전에 의원실로 배포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적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보고하는 것도……

○이종욱 위원 이게 사전에 배포되었어요?

○소위원장 전용기 예, 그래서 의원실에서 배포된 내용을 보고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이 회의자료.

○소위원장 전용기 예, 회의자료.

○이종욱 위원 다른 위원이 낸 것도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 지적이 적정한 건지.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보고받는 걸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제가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전용기 예.

○손명수 위원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결산소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사실 일독을 함으로써……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다 같이 일독을 안 해도.

그런데 이 위원님이나 저나 공직에도 있어 봤지만 지금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이견이 있는 내용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저희가 너무 급하게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진행하시려면 앞으로 행정실에서……

이 자료 언제 췌어요, 회의자료, 의원실에? 이 회의자료, 심사자료 자체를.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오늘 새벽 2시 반에 배부가 됐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읽고 와서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한번 보고 제기할 것만 탁탁 짚으면 되는데 처음 보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로 보는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최대한 저도 협조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소위 일정을 잡을 때 저희들이 1회독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아무래도 의사일정상 어저께 결산을 의결했고요 그 결산 이후에 회의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좀 늦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A 위원이 본인이 제기한 것만 보고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위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총합적인 의견을 모을 건지 그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사업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류 처리하고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양당 간

사가 결산 관련한 전체회의·소위원회 일정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새벽에 자료가 오고 어떤 방에서는 새벽이라도 받아서 검토한 방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방이 있고 한데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말자고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잘해 주세요.

○소위원장 전용기 제가 예산 때는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최대한 회의자료를 잘 확실히 볼 수 있게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입니다.

자료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이 오프라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2페이지 연번 2번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중 주의 의견 그리고 3페이지의 연번 3번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에서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개발청에서 별도의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견 청취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장,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차장 조홍남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4페이지 부대의견 1건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공사의 모든 입찰이 중단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새만금 개발이 또다시 심각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상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새만금 SOC라든지 RE100 산단 조성이라든지 해수유통 조력발전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앞으로 국정과제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 문구안으로 드리는 바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새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과제를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새만금청 차장님이십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차장입니다.

○김도읍 위원 일단 신영대 위원께서 부대의견안을 내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겁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그것은 저희의 워딩이 아니라 위원님 워딩이라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뭐 파악된 게 없어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신영대 위원께서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용역·입찰을 일시 중단한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 정도 조치를 요구할 것 같으면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차장님, 새만금개발청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2013년 9월에 했으니까 한 10여 년……

○김도읍 위원 13년째 접어드네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새만금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국토발전 방향 아닙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국토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같이……

○김도읍 위원 지역균형발전.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게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서, 정책기조에 따라서 매번 바뀌니까? 그래 왔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지금 예를 들면 RE100 산단 조성 같은 것은 지난 정부에는 없었던 사안을 새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정부가……

○김도읍 위원 그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현재 MP 용역에 그걸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신영대 위원께서 부대의견안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논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영대 위원님께서 낸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맞잖아요.

신영대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수정을 하면 수정을 해야지, 부대의견을 신영대

위원님이 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의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겠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신 위원님께서 내신 부대의견에는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후에……

○**김도읍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새만금청이 정권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새만금청에서 이렇게 가져왔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취지는, 그러니까 생각은 알겠어요. 생각은 알지만 이 문구는 나는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어찌 되었든 전북에 위치한 새만금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각오를 다지고 부대의견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정권 바뀌면 또 바뀌야 돼요? 새만금청이 중심을 잡아야지요.

제 말씀이 일말이라도 이해가 좀 갑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의견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정말 새만금 개발이 대한민국 또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대의견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이연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요, 말씀하십시오.

○**이연희 위원** 신영대 위원께서 군산이 지역구인데 지역구에서 아마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일단은 유감스럽게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이 부분은 신영대 위원의 의견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그리고 정부 의견에 대한 신영대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보류해서 위원장께서 신영대 위원의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전용기** 제가 신영대 위원 확인을 해 보면 신영대 위원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례는 뭔지……

○**김희정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이 만약에 새만금개발청 관련해서 예산결산기금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업처럼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해서 그중에서 부당하게 중단이 되거나 아까 나왔듯이 입찰이 중단되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사업도 있고 또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사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밀도 끝도 없이 이렇게 통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취지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차장님, RE100 산단 새만금으로 확정된 적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현재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정과제 반영해서 새만금 기본계획 조속히 수립하고’, 그러면 RE100 산단 조성은 우리 국토위

의 업무도 아닙니다만 새만금으로 밀어주는 겁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국가사업에 대해서, 아직 경쟁지 확정도 안 됐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부대의견을 넣는다는 게 올바른 답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그 사안은 하나의 예시를 든 사안이고요.

○김희정 위원 적절하지 않은 예시지요. 국가의 굉장히 큰 사업이고 거대한 예산이 오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에다 부대의견을 넣는다? 이것 결산입니다, 예산도 아니고.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저희가 부대의견을 드린 것은……

○김희정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답변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았어요, 새만금개발청 RE100 산단 준비하라고?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김희정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중하셔야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저는 부대의견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명수 위원 차장님, 신영대 위원님하고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저희가 의원실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손명수 위원 그런데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지금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면 바꿀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명수 위원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따르겠다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소위에서 논의해라, 논의해야 될 일이다, 그 내용은 소위 결정을 따른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이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류하고. 차장님이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고, 더구나 지역구 의원이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영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가져오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보류를 하고 나중에 새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보류하고 위원장님 보좌하시는 분이 그쪽 방하고 해 가지고, 이것 마냥 넘길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후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에서도 신영대 의원실과 조율을 해 볼 테니까요 새만금개발청에서도 따로 한번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류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투자율 개선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의견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초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주의로 내려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2페이지 연번 2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투자 독려 등을 통해서 현재 제2호 펀드는 1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계획 중이며 나머지 펀드들의 투자 상황은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4년이 됐는데, 돈도 크지도 않은데—176억 인데—90억밖에 투자를 못 하고 잉여금이 장기간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 투자운용사들의 운용 스타일이 먼저 투자를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고 신중하게 해서 뒤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2호 펀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미 10개사를 나름대로 물색을 해 놓은 상태인데 다만 다른 펀드들과 달리 약간 늦게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국토부에서 더 많은 투자 대상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봐서는 별로 투자 가치나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런 의미는 아니고 펀드가 운용하는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집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 지금처럼 약간 신중하게 하면서, 먼저 많은 풀에서 신중하게 골라 가면서 뒤에 마지막 결정 내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2호 펀드는 그 스타일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펀드가 몇천억, 몇조도 아니고 1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4년간 몇십억도 투자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펀드라는 게 잘못 투자를 하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하는데 차관께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 이렇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주의 주시고 잘하라고 하시면……

○소위원장 전용기 예, 저는 해당 부분 주의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번 국토도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용산기지 반환 및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를 위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보조금 관리규정 절차 이행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번 11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개선이 제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시정요구사항의 문구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토도시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계서 정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5페이지 연번 3번의 경우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히 기지 반환을 추진하고 대통령실 이전 등 상황 변화에 맞춰 조속한 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연번 8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시정요구 내용은 동일한데 요구 유형이 달라 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연번 11번의 경우는 저희가 문구 삭제와 관련해서 ‘사업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라는 문구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원 기간 연장 시 지방채 거치기간 차이에 따른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25년 7월 1일까지 보상을 미실시한 장기미집행은 이미 실효 해제되어서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10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소위 책자 10페이지의 연번 9번이 조금 전에 빠졌는데요.

연번 9번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부터 사업 기간 및 교부액을 조정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말씀……

○이연희 위원 11번 장기미집행 그것은 문구를 어떻게 수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가 ‘사업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라는 문구를 삭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 주십시오.

○**손명수 위원** 차관님, 이것 대부분이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도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러니까 10페이지……

○**손명수 위원**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일단 4건인데요. 4건 중에서 용산공원 관련된 것은 보조금 집행이 아니고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내용이고요.

○**손명수 위원** 뒤의 것.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다음에 나온 게 건축안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보조금 집행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10페이지의 9번 관련된 게 지역균형발전특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문화나 정주나 이런 것을 지역 발전의 어떤 계기로 삼고자 하는 건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제도개선을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15억, 15억, 20억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초기에 한 15억씩 주니까 집행이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장해 가지고 4년으로 조정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는 금액 자체를 좀, 그런 식의……

○**손명수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국토부 사업 중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집행이 안 돼요, 잘. 그런데 그것을 연장한다고 그래서 그게 집행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것은 시정이나 제도개선이나 차이는 있지만 사업계획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건축물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 이렇게 하라고 돈을 주는데 지자체는 안 쓰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간을 연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취지 자체는 좋은 사업들인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담당 직원들 입장에서 시정이나 제도개선이나, 이게 신분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꾸셔야지 자꾸 이것 기간 연장한다고 지자체에서 못 쓰던 돈을 갑자기 씹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사업별로 특성이 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보조금의 보조 시기하고 규모가 지자체의 어떤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연동해서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일단 설계 필요하고 시공이 필요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단계별로 연동해서 주거나 또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규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다 공히 해당될 텐데요. 그러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고민을 해서.....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업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사실 지자체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이런 보조금을 주면 지자체는 집행할 준비가 되고 의지가 있고 또 필요한 사업을.....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것을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덜렁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은 이런 유형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걸 하셔야지 덜렁 문제 생겼다고 사업 하나 몇십억짜리 만들고, 100억짜리 만들고 했는데 못 쓰고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사업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용산공원 위해성 저감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도개선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랑 또 국방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도개선만, 저희가 제도개선 의견을 냈습니다만 제도개선만 해서 이런 협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준호 위원의 시정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 측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위원님,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용산기지 반환 협상은 협상 자체는 국토부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주체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요. 국토부는 사실 반환이 되면 그 이후에 구역에 대해서 펜스를 치고 사업을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방점을 둔 이유는 사실 국토부가 역할은 제한이 되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반환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관여를 하겠다, 열심히 협조 요청도 하고 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국토부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래서 사실 오히려 협상하고 외교부와 국방부와 대화하는 과정 중에 이런 조치들이 국회에서 시정이나 주의 정도를 받았으니까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제도개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시정으로 해 놓으면 국토부가 시정할 방안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0페이지 9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의견이?

○**손명수 위원** 아니, 10페이지 이런 것은 제도개선하고—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주의나 시정하고, 공무원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기나요? 해당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없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제도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시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의도 아니고.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사업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사실 이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손명수 위원** 즉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인데 이걸 제도개선해 가지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기초실과 또 이 보조금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시정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해 주시는 게……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손명수 위원** 이번만 넘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또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가고 11페이지도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도 봐야 됩니다.

9페이지도 한준호 위원께서는 시정 조치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의견을 내셨는데요. 관련해서도 제도개선 의견이십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3번 주택토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연번 2번 되겠습니다.

주간통계의 폐지 등 주택가격통계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한 두 가지의 시정요구 사항 중 첫 번째 사항인 주간조사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으로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연번 3번 마이홈포털 사업의 동일 업체에 대한 분할 수의계약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대상 주거급여 인상에 대한 부작용 검토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정요구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손명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유형을 당초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서면질의 변경서를 오늘 제출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 주택도시기금 중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으로 2건의 시정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의견은 맨 뒤 44페이지 연번 12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남아 있습니다.

연번 36번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무분별한 기금 예탁 연장 금지를 위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그리고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토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14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통계 감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향조사 신제도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조정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책자 14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홍보하고 오프라인 홍보는 기간, 방식 등 성격이 상이하여 별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향후 이러한 집행 사례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연번 5번의 경우 손명수 위원께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셨는데 이 경우는 전용기 위원님과 손명수 위원께서 두 분 다 제도개선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이것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대의견 12번에 그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23년 결산 당시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운영한 후에 사업을 폐지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연번 36번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전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것이며 앞으로는 본연의 주거복지 목적에 충실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홈포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의계약을 5000만 원 미만으로 4870만 원, 4578만 원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의도적인 일감몰아주기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글썽요, 온라인 홍보하고 오프라인 홍보하고 결국은 한 업체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렇다면 합쳐서 1억 원짜리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공모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온라인 홍보하고 오프라인 홍보가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같은 성격으로 해서 한 번에 나가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먼저 나갔던 일과 뒤에 나갔던 홍보가 연이어서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5000만 원 안쪽에서 나가면서 둘이 합쳐서는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게 핑계를 댈 수는 있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겨 올해 첫 사업이에요, 작년에?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작년 거고, 올해 25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이것은 금년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실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홍보를 계획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는데 따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했고, 다만 특정 업체가 둘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 실무진들이 일을 할 때 여러 업체들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일단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 측면도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같이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업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온라인 홍보를 잘하는 업체와 오프라인 홍보를 잘하는 업체는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온라인 홍보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지만 오프라인 홍보는 다른 차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같아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점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미리 주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금액도 그렇잖아요. 5000만 원에 4800만 원, 4600만 원 이것은 제도개선 할 게 없잖아요. 이걸 제도개선보다는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주의 받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주의를 받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14페이지 3번 주의 조치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정준호 위원 28쪽 24번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부대의견도 다 좋고 폐지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시정 조치가 맞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새로 사업 편성이 될 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 분석은 자체적으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잘 안 된 거고 다음에 다시 사업 계획하면 이런 일 다시 안 벌어진다는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문제점 분석이라든지 자체, 이런 페이지로 분석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원인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바는 없지만 작년 결산에서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이라는 기본적인 한계와 리모델링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편이 너무 컸던 부분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지원요건도 상당히 엄격하게 설계가 되었던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에 유사하게 층간소음 관련된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구조 설계나 수요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보면 용자하고 재정 보조가 동시에 병행돼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대출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민간에서 제대로 참여를 많이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이 있는지 제가 여쭙본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이 사업은 용자만 지원되었던 사업이고요 재정 보조는 별도로 진행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무튼 이것은 부대의견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실장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부에서는 주의를 수용하겠다, 김희정 위원님도 제도개선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지시를 좀 잘하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김도읍 위원 지금 이게 공사 업무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김도읍 위원 실장님께서 지시 잘하셔 가지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보고를 받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자료를 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상 전세사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좀 연결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사실은 이게 주의나 제도개선보다는 더 높은 단계로 지적이 가야 되는 건데 국토부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관리감독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찾아 갖고 보고받으시고 또 국회에도 말씀을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조금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실장님, 주택가격통계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부동산원에서 동향조사라든가 할 때 여러 측면에서 좀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고 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객관성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서 부동산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사후 조치가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다만 전반적으로 통계 조사에 대한, 가격동향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견은 전반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폐지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통보 이후에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주간으로 월간으로 동향조사가 나오고 그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폐지하고 대체 수단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내부 검토, 또 외부 전문가 의견들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지금 딱 결론은 아직 안 내려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되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손명수 위원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19페이지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집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수용 의견을 주셨는데요. 확인도 할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용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고치겠다는 뜻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차관님,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이 보증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들게 돼 있고 그 경우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보시다시피 실행률은 20%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임차인한테 보증을 들게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임차인은 이것 보증료 삼십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면 온갖 마음고생에 물

질적 피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자체를 빨리 고쳐야 된다, 제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반환 보증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았는데 그 임대인이 당연히 돌려줘야 될 돈을 안 돌려주니까 국가가 대신 돌려주겠다 하는 건데 심지어는 그 보증을 드는 보험료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원해 줘도 임차인들이 그 지원을 지금 한 20%밖에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전세제도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월세로 바뀌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월세나 전세를 임차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월세로 해라, 전세로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부가 전세제도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못 개입함으로써 시장에 많은 왜곡을 가져오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환보증제도가 아주 핵심입니다. 2023년도에 이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엄청난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에 대한 책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반환 보증을 할 때도 당연히 임대인이 들어야 되고 또 들 때 임대인이 자기가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한다 할지 내가 전세금을 받았는데 안 돌려줄 경우에는 그 집을 내놓겠다든지 뭔가 이런 당연한, 거의 상식에 준하는 그런 제도가 설계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임대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HUG가 보증보험을 들어 줄 때도 임대인에 그런 것을 전혀 징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보증료 지원 이런 거나 하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만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조장하는 제도를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개선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정말 다 이해하고 수용한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결산 대충 빨리 넘어가자 하고 수용한다고 하신 건지 정확하게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러니까 저도 근본적으로 이런 보증금반환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전세사기가…… 임차인의 보증이라는 것을 HUG가 지원해 줬고 또 HUG의 부족한 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이런 구조가 되면서 결국에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전세사기범에게 전달되는 그런 경로는 이번 전세사기에 대한 저희 국토부의 방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 전반은 당연히 향후에 전세제도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그 방향과 아울러서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차관님, 이것은 그냥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신속하게, 즉시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의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제도를 고쳐야지 추가적인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는 계속 피해자 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도 매달 한 1000명 가까이 새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이 잘못된 제도 때문이에요. 차관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즉시 제도

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심사자료 27페이지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 부분이 지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LH가……

○김도읍 위원 아니, 27페이지 22번.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읍 위원 김도읍 하면 딱 예상하기를 분쟁조정위원회를 예상 문제로 찍고 오셨구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게 아니라 27페이지를 17페이지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읍 위원 공사에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신종자본증권을 7000억이나 발행했는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잡히지만 사실상 장기채무거든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로 부채관리를 하겠다고 한 건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게 회사채 대비 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금, 일반회계에 여력이 없어서 현금출자가 곤란했던 상황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HUG가 채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포함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그 자료만 읽지 마시고 국제회계기준상으로 이게 자본으로 잡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장기채무예요. 그리고 일반 회사채보다도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채무, 부채를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지, 이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처방이거든요. 어렵습니까?

실장님, 지금 실질적인 부채관리 방안이 맞냐 제가 지적한 데 대해서 우리 부도 일단 제도개선을 수용하셨거든요. 지금 산하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사실상 내가 볼 때는 ‘부채관리를 그냥 그때만 넘겨 보자. 사후에는 부채가 더 악화되고 하더라도 모르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채관리 방안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국제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사실상 자본으로 잡히지만 이게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사채보다 더 높아요, 금리가. 자꾸 악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것도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 저에게도 말씀 주시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이종욱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전용기 예, 말씀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35페이지요, 공자기금 예탁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고국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잘 아는데 글썄요, 개별 상임위, 저는 국토위 소속이니까 국토위 입장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공자기금은 사실 기금의 기금이거든요.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기금을 무분별하게 예탁 연장을 금지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사실상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 조달 방법이잖아요. 정부 내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 내부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만큼 국채를 발행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제도개선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토부나 주택도시기금 입장에서는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글썄요, 시정·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정·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인데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게 위법·부당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 정도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제도개선 정도로 하고 기재부에서 가급적 개별 기금의 운용에 너무 무리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예탁은 지양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것을 정부 전체로 제도개선 방안을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시정·주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전용기** 저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 조치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왜냐하면 3년간 220조를 일반회계로 투입을 했거든요. 그 예탁한 돈을 정부가 임의로 연장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사실 국회가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자기금을 이렇게 돌려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된다면 보류 사업으로 넘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정리가 필요한데요. 김은혜 위원께서는 부동산 통계조작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해서 시정 조치를 내려 주셨는데,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고 재판 중에 통계조작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계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정을 해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봐서 저는 제도개선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동의해 주시면……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14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3번 같은 경우 주의로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 주셨고요. 15페이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손명수 위원께서 수정해 주셨고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35페이지인데요. 35페이지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류 사업으로 넘길까요? 아니면……

○**이종욱 위원** 예, 보류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것을 예탁하는 게 예산으로 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하고 관계없거든요, 국회에서 어차피 예산·결산은 보니까. 연도 중에 이 기금을 가져가는 게, 그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확보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여당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율성이 굉장히 제약됩니다. 저는 야당이니까 사실은 이것을 시정·주의까지 하는 것이 좋지만 국고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하자 그렇게 제의하는 수준에서 국토위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는 사실 주의 정도로 해 주는 정도를 바라는 정도였는데요. 시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자기금을 주택기금하고 그동안 계속 저희가 상당히 융통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일정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개선되면, 한번에 개선되고 하면 좋겠지만 정부 재정 운용에 따라서 또 기재부와 어떤 협의 사항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주의 정도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윤종오 위원** 제도개선……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해당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끔 부대의견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저는 시정을 냈는데 제도개선 말씀하시면 주의 정도로 하고 부대의견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오 위원** 정부가 주의 받겠다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가 수용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주의 조치로 하고 부대의견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종욱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국토부는 가급적 돈 뺏기기 싫다는 얘기 같고 예결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국토위 왔으니까 국토위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감사합니다.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제가 다른 회의와 겹쳐서 좀 늦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서 한번 확

인하고 넘어갈게요.

19페이지의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실패,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손명수 위원님이 아까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같음하고요.

현재 보증료에 대한 지원을 사업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실집행률이 28%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게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써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낮아지면 예산을 다음번에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은 유지하되 그만큼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사용처 그리고 보증료 집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라고 하는 주의 조치가 오히려 적절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정부 의견은 수용하고 주의라는데—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제가 몰라서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가 주의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염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계신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28페이지에 한준호 위원과 정준호 위원님께서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괄 부대의견으로 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정리를 할까 싶거든요.

정준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호 위원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해당, 정리된 것으로 넘어가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소위원장 전용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해서 37페이지 4번 건설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된 제도개선 요구 사항과 다음 페이지 연번 2번 건설기계임대료 체납금 회수율 제고 등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2건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과 39페이지 연번 3번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 및 연례적·반복적 이월과 관련된 주의 요구 그리고 40페이지 연번 4번과 관련된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41페이지 연번 5번 방치되고 있는 공동(空洞)에 대한 조속한 복구 방안 마련

등과 관련돼 42페이지에 정리된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 건설정책국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정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에서 모두 수용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는 다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잠깐, 수용은 수용인데 이것 누가 이렇게 예산 깎습니까? 아니, 이런 예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누가 깎냐고요. 10억이던 것이 2억 5000 갔다가 다시 4억 왔는데, 다시 10억 원상회복도 지금 안 되는데 이것을 누가 깎아요, 주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 37페이지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 말이에요 나는 이것 깎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진짜로.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그냥 ‘활성화’ 해 놓지 말고 제대로, 그냥 ‘활성화’ 하니까 너무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문구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입니다. 남영우입니다.

일단 예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산 반영에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구요.

그리고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초 기능 교육 시설을 금년도에 했고 26년도에는 조기 승급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라든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오 위원 아니, 예산이 다 깎였는데 무슨 충분한 논의를 해 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부족했다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남영우 충분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예산 반영 과정에서 조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다른 수천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제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지난번에도 지적드리고 한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깐 하여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 내년 예산 부분에 확실하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남영우 현재 정부 예산안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확정이 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동의를 되셨습니까?

○윤종오 위원 지금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토부에서 얼마 올렸어요? 26년도 예산에 지금 얼마 올렸는지 확인이 됩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윤종오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게 예산이 23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줄면서……

실장님, 예산액이 줄어들면서 집행률이 높아진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그대로 몇 년간 유지가 되는데 집행률이 높아진 게 아니고? 실장님, 그렇지요? 맞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여기 테이블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22·23년에 예산이 많을 때보다 24년 25년 줄었을 때가 집행률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집행률이 높아지니까 예산을 더 올려라 이게 논리가 맞나요? 그것 제대로 좀 공부를 해 오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10억일 때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고 겨우 80%로 노력해 가지고 올렸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2억 5000으로 줄여 놓으니까 98%까지 올랐다 이것 아니에요? 집행률이 자꾸 오르는데 왜 예산을 줄이느냐가 아니고 예산을 줄이니까 집행률이 오른 것 아니에요? 예산을 줄였는데 모자란 게 아니고, 집행률이 100%가 안 되잖아요.

○윤종오 위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 현장에……

○김도읍 위원 아니, 저는 수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수치만.

○윤종오 위원 예, 하여튼 청년들이……

○김도읍 위원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입증의 안 되잖아요.

○윤종오 위원 제가 좀 많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전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 수요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시면 예산을 소요 못 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아질 일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 주십시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줄었을 때 90%대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23년도도 10억을 했을 때 한 80% 정도 선은 유지를 한 거로 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24년 25년의 2억 5000이나 4억은 부족한 양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10억 원 정도 이상으로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저희가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차관님께서 10억으로 해 가지고 집행률 100%로 만들 자신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번 예산에 15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10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노력을 하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9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예산은 집행률이 90%밖에 안 되어도 그것은 위원들이 보기에 따라서 질타가 되는데요. 90%가 최상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건설정책국장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에 대한……

○김도읍 위원 그러면 말씀을 안 하셔야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건설국장님, 말씀 주세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건설정책국장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남영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현장에서는 청년들 진출이 많이 제약되고 있고 특히 숙련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 청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숙련화시키는 교육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예산 때 봅시다, 국장님. 예산 때 보는데 뭘 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남영우 예.

○김도읍 위원 이분들이 실제 건설기능인으로서 몇 프로 취업했는지 그 자료까지 가지고 예산을 봅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논거가 되고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우리가 수공을 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남영우 예, 준비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전용기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자료 43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은 총 22건의 부대의견 중에서 44페이지에 있는 9번 10번 19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들어 보신 후에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44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부대의견 내용에 ‘조속하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 대신에 ‘해제 절차를’이라는 표현으로 수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옆에 있는 김종양 위원님께서 저를 놀립니다, 부대의견 그 많은 것 중에 왜 내 것만 ‘수정 필요’냐고.

(웃음소리)

말씀은 알겠고요, 실장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이렇게 부대의견

을 낸 취지도 알 겁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김도읍 위원 취지를 잘 살려서, 지금 곧 2차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전향적으로 잘 봐 주십시오. 그것은 이미 국토부가 1차 할 때 부산시에 요구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실장님?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할 테니까 그 취지는 잘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그렇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리고 44페이지 연번 10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발표 창구를 국토교통부, 관련 부처 간의 TF, 별도로 설립된 주택청 중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태스크포스나 주택청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더욱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안태준 위원님이 잠깐 이석하셨는데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다음 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염태영 위원님이 해 주신 19번.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45페이지 부대의견 19번입니다.

해당 부대의견의 문구 중 ‘채불e제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에서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채불e제로를 사용하고 있는 철도공단에서도 채불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채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불e제로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채불 압류가 채불e제로에서도 앞서 말했듯이 발생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한 시스템들, 민간에서도 한 서너 개 쓰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이것 외에도 조달청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한 서너 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스템을 여기 부대의견에다 명시하는 것은 약간 표현상에 과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대표 용어인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써서 채불e제로 대신 그 용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염태영 위원 수정 필요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 취지는 지금 현장에서 다단계의 하도급으로 인한 것 또 건설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임금 채불에서 비롯돼서 임금 채불을 최소화시키자고 하는 취지니까 임금 채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최대한 장단점 비교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검증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 채불e제로 시스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취지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수석전문위원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는데 문구 나왔으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자료 35페이지에서 공자기금 예탁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결정을 하되 이와 관련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 23번을 한번 제가 일독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저하하는 무분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연장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 이렇게 초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저는 동의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23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10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 측의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대의견 10번입니다. 안태준 위원의 지적사항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44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 부처 내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TF를 만들거나 아니면 주택청 등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처 간의 태스크포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주택청을 설립해서 주택공급 대책의 일원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직까지 현재에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부대의견에 넣기가 좀 곤란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안태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래서 대안 문구로 저희는 ‘국토교통부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발표 창구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TF, 주택청 등’ 이런 내용 대신에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생각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러니까 창구 일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공급 대책이나 기타 대책을 발표할 때 보면 협의하는 과정들은 거치지만 이게 어떤 주택청이라든지 구체화된 조직 형태를 띠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 해서 지금 그 정도까지 저희가 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정도로 한다면 일원화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의미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주택공급 같은 경우는 정책을, 사실은 다들 인정하시다시피 국토부 혼자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기재부나 관련 기관들 간의 TF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발표 창구니까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슨 뜻인지는 알 거니까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김희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희정 위원 안태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논의 구조에서 국토교통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아닌 어쨌든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늘 발표가 돼야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처나 대통령실, 총리실 등에서 발표가 나가고 바로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했는데 ‘우리하고는 협의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표점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태준 위원 저도 김희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고.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나에 넣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지적한 하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 창구를 정부 내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가 된다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이것은 저도 김희정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님?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해 주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연희 위원 신영대 위원 건은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새만금청은 다음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네 번째 교통 분야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1쪽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사항으로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국토 분야에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이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R&D 사업과 관련해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 사업의 실증 연구를 재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의견과 전기차 수요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 제도 개편, 전기차 양산체제 준비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저상 좌석버스 의무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 관리와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2차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요 이 중에 복기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문구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님은 ‘표준모델 개발 사업의 실증 연구를 재추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2026년 완료 사업인데 여기서 실증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것은 새로운 차량을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예산 확보도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실증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준비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협의를 해서 실증 연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구 수정을 ‘실증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조금 전의 2차관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연구를 재추진한다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결정을 낼 게 아니고,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얹혀 있잖아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정도로 해 줘야지 단정적으로 ‘재추진할 것’ 이걸로 수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추진이 안 되면 그때는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거냐. 그래서 아마 거의 부대의견 성격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차관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갑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하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김도읍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수용 안 하는 걸로 하고.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그것은 받지 않는 걸로 하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여기 문구만 수정의견을 제가……

○소위원장 전용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문구는 ‘실증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을 여기서 바꾸기는 그렇고 수용 안 하는 걸로 하고 대신해서 부대의견에 차관님 말씀을 그대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부대의견으로 새롭

게 넣는 걸로 하시겠지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구를 주셨는데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용하지 않되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교통물류실 2건 더 이견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의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적이 2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는 주의에 관한 지적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9쪽에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사업에서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지적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2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첫 번째로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주의로, 둘 중의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주의로, 저희가 그동안에 부족한 면들을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주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 재이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서 시정 조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이연희 위원님하고 한준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하겠다고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제도개선으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한준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이 중에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양산 체제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이 R&D에서는 수소차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기차를 바로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번에 R&D를 하면서 수소·전기차가 모두 가능하도록 그런 생산 표준모델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을 다른 자동차 업체에다가 다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읍 위원 이게 지금 한준호 위원님 지적 사항도, 나는 이연희 위원님 말이 여기 맞는 게 한준호 위원님 지적 사항을 보면 결국 시정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추징을 한다, 회수를 한다, 원상복구를 한다 그다음에 사업 방식을 아예 바꾼다 이런 게 돼야 되

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요구사항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어떻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10쪽 항공정책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지적이 제시되었는데 그중에 2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이견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10쪽 하단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신 데 이연희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질의를 철회하신 부분을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해서 이 부분 표기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수의계약 입찰과 관련한 지적입니다. 해당 계약·사업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부실한 사전 검토와 잘못된 안내·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첫 번째, 울릉 소형 공항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활주로 연장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게 표현이 됐을 때는 사업비가 지금보다 한 더블 정도 들고요. 8300억 정도가 1조 7000억이 드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막 대수심으로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사업 기간은 한 3년 정도 늘어나고 또 타재가 들어가야 돼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구를 수정해서 ‘활주로 길이 등을 고려한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안전성에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활주로 길이보다는 이걸 포함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견 좀 주의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게요 과거에 제가 장관께 질의를 했을 때 1조 더 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도 1조가 안 나오길래 다시 보고하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결국에 총사업비가 1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는 거였는데 국토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재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주의 조치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이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러면 위원님 그것 주의로 받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문구만 좀 이렇게……

○소위원장 전용기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활주로 길이 등을 고려한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주의 조치 받으시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주의는 받고요.

○소위원장 전용기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다음에 가덕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변경된 공정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개항 시기의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에 대해서 ‘입찰안내서를 참고하여 검토 결과대로 제출 가능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저희가 84개월을 입찰안내서에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검토 결과대로 제출 가능하며’ 이런 표현이 들어가니까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면서 엄중 경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입찰안내서에 있는 84개월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해라 이런 취지로 저희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입찰안내서에 84개월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면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사전 검토와 잘못된 안내·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주의를 받되 표현을 바꾸자 하는 뜻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표현을 좀 바꾸자.

○염태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김도읍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읍 위원 의견 없어요.

○소위원장 전용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다음 세 번째, 모빌리티자동차국 소관, 15쪽입니다.

총 5건의 지적 사항이 제시되었고 이 중 1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9쪽 사항입니다. 도심항공교통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UAM 산업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주도 민관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며 UAM 실증시설 구축 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할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시정 두 분과 제도개선 세 분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의견을 주셨는데 어차피 통일을 해야 된다면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UAM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임시 시설을 설치했는데 텐트라든지 콘크리트로 해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쪽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UAM이 미국에서 조비(Joby)라는 사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인증이. 그래서 한 일이 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기존에 투자한 것들이 중복 투자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것은 어찌 보면 가시설 정도의 임시 시설로 했기 때문에 크게 예산 낭비는 아니다.

예를 들면 격납고 대신 텐트라든지 콘크리트 이런 가설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비 이런 것에 맞춰서 제대로 된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납고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버티포트라든지 이런 걸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저도 시정 의견을 냈는데 정부 의견에 동의해요.

○소위원장 전용기 동의합니까?

○정점식 위원 제도개선.

○소위원장 전용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시정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해당 부분들을 조금 함께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시정 의견도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게 그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오퍼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현실적인 문제가……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시정으로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시정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상복구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맞지.

○소위원장 전용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도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국 관련해서는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예산의 이·전용 사용 주의, 공공요금 예산의 과도한 전용 반복 그다음에 과적 단속 사업과 관련한 질의와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사업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보전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지적하셨는데 이 지적 모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수용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는 수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의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국도 정부 측의 수용으로 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26쪽 철도국 소관입니다.

총 10건의 지적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에 2건의 수정이 필요한 국토부의 의견이 있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쪽 연번 1번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연번 10번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실행행률이 부진하고 그리고 제작 업체의 업무 진행도와 납기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가 교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각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우선 국가철도공단의 책임 강화 필요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점식 위원님께서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수행할 영역을 재설정하는 등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시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제도를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점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점식 위원님 동의해 주시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과 관련해서 어제 말씀 주셨지만 이게 납품 지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둘 다 저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라든지 이런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주의 조치를 받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주의로 주시면 저희가 주의도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이 수용……

○김도읍 위원 아니아니, 잠시만요. 이게 국토부는 주의를 받은 시정조치를 받은 관리감독 업무를 확실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차관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사업 이게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지자체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도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개선을 안 한다고 해 갖고 어떻게 한들……

예를 들어 부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철도가 있는 도시를 보면 이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해요. 무임승차 비율이 높아지지요 이려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 개선도 어려워요. 시설 개선하는 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결국은 전기시설이라든지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시설, 신호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지금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런데 가장 큰 덩어리인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지자체들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은 천준호 위원님이나 박용갑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오히려 부대의견이나 이래 가지고 국토부가 재량은 없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오히려 부대의견을 국토부가 제시를 하고 국무회의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차관님, 그런 것을 제시를 해 줘야지 교통에 대해 최종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가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철하고 도시철도하고 양분이 되면서……

○김도읍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것은 기재부 논리고 국토교통부차관께서는 여기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입장에서는 교통의 안전 그다음에 교통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에만 맡겨 놓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오히려 국토부에서 나가 줘야 된다 이 말씀이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노후차량 개선지원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는 25%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는 30%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커스는 사실상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적게 줬다 이런 것보다는 납품 지연이 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선금까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교부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김도읍 위원 그러면 납품 지연의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납품 지연은 이것에 한정해서 본다면 다윈시스라는 회사가 작은 가격으로 납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캐퍼(capacity)에 비해서 많은 것을 입찰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하면 돈도 주면서 관리감

독.....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전용기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 정도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넣을 수 있게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정도, 그 정도.....

○소위원장 전용기 실제로 행해질 수 있게끔, 지금 천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에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부 측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 중에 2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용 의견을 밝히고 있고, 1건 이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희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이라는 R&D 사업과 관련돼서 해당 R&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지난해 예산이 모두 불용 처리되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분담금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 미납에 대한 조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세 분으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들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도개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R&D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방비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이것은 부산시에서, 부산테크노파크라는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정확한 것은 제가 조금 더 스테디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저는 하여튼 R&D를 지방비랑 같이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짰잖아요. 부산시랑 협의가 됐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겁니까, 안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의회에서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왜 우리가 분담을

하느냐' 해서 의회에서 잘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앞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무슨 의회에서 받아오든지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래서 제도개선에 동의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에서 원래는 수용곤란 의견을 내셨다가 지금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위원님들 지적 타당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관련.

○**전문위원 임종수** 끝으로 38쪽 공공기관 관련한 3건의 지적 의견 중에 2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의견을 밝혔고 이견을 제시한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한국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두 분께서 하셨고 한 분은 시정 의견, 나머지 한 분은 주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이것은 시정과 주의, 두 갈래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 노력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 매각 부분인데 용산역세권이라든지 차량기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동산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점식 위원님께서 시정 조치 하셨는데 주의 조치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조치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종수** 41쪽 부대의견입니다.

교통 분야 관련해서 총 32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 29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용을 했고 6번에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관련 사항과 그다음 43쪽 27번의 도시철도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지원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죄송합니다. 41쪽 8번에 있는 서해평화도로 2단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리고 조금 전에 1페이지에서 부대의견 그리고 34페이지의 부대의

견을 추가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그 관련된 보고도 하고……

○전문위원 임종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준비됐으면 바로 지금 보고해 주시고요 준비 안 됐으면 정부 측 의견 듣고 이후에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6번인데요. 이연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면세점 입점 업체와의 임대료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 이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대안 문구나 이런 것으로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대안?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 문구 대신에 예를 들면 임대료 관련 분쟁으로 인한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든지.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러면 그렇게……

○소위원장 전용기 이연희 위원님, 그러면 수용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다음 것 바로 보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8번 배준영 위원님께서 ‘서해평화도로 2단계 건설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광역시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버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고 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서해평화도로 2단계 건설 사업이 인천 내에 있는 도로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방도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인천시도입니다.

○김도읍 위원 아, 인천시도예요. 그러니까 지방도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것은 향후에 인천시에서 계속 하는 것이, 국도로 좀 승격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국도 승격 이후에 해야 될 거지 이것을 바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아직 지방도로인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한번 배준영 의원실에 물어볼까요? 그것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점식 위원 시도에 대해서 국비로 타당성 용역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김도읍 위원** 사실은 이것 지방도면 인천광역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혼잡도 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중앙정부에 좀 밀고 이런 방안을 찾는 게 맞는데……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모아 주시면 해당 부분은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다음에 PSO 감면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도시철도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방안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민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검토이고요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김해시가 연간 한 500억 이상, 부산시가 300억 이상 해서 두 지자체가 거의 연간 한 900억 가까이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중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저희들도 기재부와 협의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가중이 되고 있어요. 검토 잘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하나 여쭙볼 것 있어요.

이것 애초에 검토를 어디서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어떤 것 검토를……

○**안태준 위원** 이 철도를, 부산-김해 철도 검토를 애초에 어디서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는 하고 도시철도망 계획에……

○**안태준 위원** 이것도 MRG 걸려 있던 거지요?

○**김도읍 위원** 안산인가 안성인가……

○**안태준 위원** 용인.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용인 경전철.

○**김도읍 위원** 용인인가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안태준 위원** 용인 같은 경우가 한 8000억 날아갔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런데 위원님, 통상적으로 이런 PSO 같은 경우는 노인 무료 요금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를 도와 달라는 건 아니고요 노인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것을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MRG하고는 조금 성

격은 다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MRG가 워낙 부담이 되니까 그거라도 좀 도와 달라는 거지요.

○**안태준 위원** 애초의 문제 때문에 뭐냐고 이제 여쭙본 거고.

애초 문제가 그게 있어서 워낙 부담이 돼서 그런 거지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지방도시철도임에도 불구하고 PSO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게 MRG 부담이, 아까 이야기했던 게 MRG거든요. 그게 부담이 워낙 크니까 감당을 못 해요, 지금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검토할 때 너무 교통 수요를 이렇게 막 잡아 가지고 하니까……

○**김도읍 위원** 과거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용인하고 비슷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요즘은 전국 어디고 국가교통 DB라는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수십 년, 20년 전,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요에 오류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예산심사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기재부도 설득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볼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만 잡아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추가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종수** 앞서 논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2건입니다.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라는 첫 번째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 측 의견.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 이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정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보류 사업이 있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돈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보류 사업이 있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차장님께서 의원실과 협의한 결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이후에 바로 신영대 의원실을 찾아가서 비서진과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결국은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의원실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계시는 곳까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만나 뵙지 못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부대의견 수정안이라고 해서 이 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도 저희가 역시 수용할 수 없는 안이어서 이걸 다시 수정하는 부대의견 수정안을 부득이 하나 더 추가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됐고요.

○**소위원장 전용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을 좀 뵙고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있더라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단을 해야지요.

○**이종욱 위원** 새만금 기본계획이 없어요, 지금?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기본계획은 지금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여기 ‘조속히 수립하고’ 하니까 처음 수립하는 것같이 보여서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지금 재수립 중에 있는 그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새만금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잼버리 사태 여파로 윤석열 정부 때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던 그런 것인데 군산이나 전북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한 톤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김도읍 위원** 사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잼버리 여기의 책임이 김윤덕 장관도 지금 상당한 책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부대의견을 왜…… 부대의견을 이런 식으로 ‘지난 정부에 정치적 악용된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런 것은 안 맞고 나는 이 부대의견은 사실 빼야 된다고 봐요.

○**안태준 위원** 아니, 이것은 의원실 안이니까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 빼야 된다고 봐요.

○**정점식 위원** 그래서 정부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하시려면 조금 더 수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김도읍 위원** 정부안도 지금 새만금청에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추진한다’ 이래 가지고 추진할 수 있어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정도 해 가지고 여지를 좀 줘야지.

○**이연희 위원** 30년 동안 지체되어 왔는데 ‘추진한다’도 못 넣으면……

○**김도읍 위원** 아니, 아니에요. 새만금은 전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근본적으로 한번…… 전북이 아쉽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실효적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은 일단 전북도 차원에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부대의견은, 이게 추진한다 그러면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재부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 부처의 협의와 이런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새만금청에 추진해라, 추진한다. 그런데 다른 관계 부처에 협의가 안 되면 또 예산이 안 태워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부대의견은 항상 그렇게 좀 여지를 두면서 하는 게 관례였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결단에 따르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의견 하나 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전 정부에 정치적 악용된 사례가 있는 것’ 저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재검토’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영대 위원의 입장도 그리고 의견도 존중을 해서 정부안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도로 넣으면 이 ‘재검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신영대 위원의 의견도 반영하고 정부에서 부담도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해당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읍 위원**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소위원장 전용기** ‘재검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도로 하면 ‘용역·입찰을 일시 중단하고’ 해당 부분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요.

○**김도읍 위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이연희 위원**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전북 도민의 정서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30년 이상 지체되어 온 것 어쨌든 간에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추진한다’로 해 주십시오, 부대의견인데.

○**소위원장 전용기** ‘추진한다’ 정도로 해도 정부에서 부담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재검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정부 측은 어떻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저희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새만금청이야 당연히 수용하지요.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어 온 건데.

그런데 새만금청이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이 부대의견을 들고 새만금청에 가고 전북도민들한테 공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정부 저 정부, 내 편 네 편이라고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실효성을 가져야 되

는 거예요.

지금 추진한다고 돼 있으면 우리 전북 도민들은 추진하는 걸로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계 부처가 좀 많습니까? 그 협의를 다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요구하면 도와드리고 다 해야지요. 그런데 추진한다고 이러면 다른 관계 부처에서는 이게 기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속을 시키려고 우리가 결론을 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과연 맞냐는 거지.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안태준 위원**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도 다른 부처에서 안 받는데, 결론을 내는 의지를 보이는 게……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추진한다’라고 하고 ‘재검토’ 내용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염태영 위원** 기본계획을 조속히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아까 그 앞에 했던 현재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표현이 오히려,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데 재검토한다 그러면 더 후퇴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도읍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염태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준호 위원** 아까 입찰·용역 중단 때문에 이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 가지고요.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재검토된다는 얘기가 오히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처럼 되니까 기본계획이 수립……

○**김종양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있으니까 재검토가 맞는 거지. 수립한다 그러면……

○**정점식 위원** 아니, 그걸 다시 지금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예,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니까.

○**염태영 위원** 재수립 중에 있다?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예, 금년 말까지 재수립해 발표할 겁니다.

○**염태영 위원** 그러면 ‘조속히 재수립하고’ 이러면 되잖아.

○**김종양 위원**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이 전면적으로 다 바뀔 수가 있는데……

○**김도읍 위원** 지금 이게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라는 말은 안 맞지요.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재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할 거라고 봐요.

○**김종양 위원**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아니면……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흥남**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수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흥남**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신영대 위원은 지금 진행 중인 입찰과 용역을 중단하자라는 원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는, 그러니까 그걸 안 벗어나는 의미에서 재검토라는 단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도읍 위원** 아니요, 그러려면 이게 속기로 다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함축해서 재검토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면 결국은 지난 정부에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된지, 그게 용역과 입찰을 일시 중단해야 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신영대 위원이 자료를 제시하고 우리를 설득을 시켜야지요. 주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심의를 왜 합니까? 심사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새만금청에서도 용역과 입찰을 중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재검토라는 말을 넣고 거기에 입찰과 용역을 일시 중지하는 게 함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염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이게 반영되는 안들을 충실하게 넣으라는 취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맞고 ‘추진한다’를 꼭 넣고 싶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재검토하고 이것은 염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연결해서 계속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는 건데 이것을 재검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재검토한다는 말은 안 맞지요.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새만금청 차장님, 그러니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재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흥남**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연희 위원** 수립 중에 있어요?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좀 더 세부적으로는 21년 4월 달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21년 4월 달에 발표된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3년 8월 달에 총리께서 새만금 빅 픽처를 그려라 하시면서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일정상 금년 말까지 재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흥남** 그리고 그 수립 과정에서 현재 변화되는 조력발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전면 재수립을 작업을 해 왔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정부의 계획안들이 지금 반영돼서 수립을 하고 있어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흥남** 예, 그것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신영대 위원의 취지는 그것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함축적으로 신영대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신영대 위원이 제안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악용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남기고요.

우선 신영대 위원도 전북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정치적 내용들은 다 빼고 재검토라는 내용은 좀 들어가야 그래도 신영대 위원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라는 내용은 넣되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진한다라고 하면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도로 낮추고 재검토라는 이야기를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수립하고 새만금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을 강구한다?

○소위원장 전용기 예, 그 정도로 하면 신영대 위원 입장도 듣고……

○안태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재검토 과정 중에 충분히 지역민들과 의원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말씀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문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재 재검토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아니, ‘현재 재검토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소위원장 전용기 그 내용은 안 맞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냥.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그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괜찮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면 재검토를 재수립으로 하시면요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전용기 지금 수립 중인 내용들을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았습니다.

○안태준 위원 재수립이니까, 지금 재수립 중인, 지금 현재 정부에 와서 재수립 중이라고 하니까.

○정준호 위원 뉘앙스만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재수립하고 있는 내용들을 재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한다’로 가는 것이 신영대 위원이 재검토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라는 내용을 넣고 수립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실에 설득을 하시고 재검토 과정 중에 신영대 의원실과 전북에 있는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리……

○이종욱 위원 아니, ‘재검토’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국어인데 기존에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그러면 현재 계획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제안을 했던 ‘현재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어떤 의견 있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있도록 현재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수립하고’……

○소위원장 전용기 그 정도는……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현재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수립하고’.

○소위원장 전용기 서로 맞춰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체회의가 있으니까요 신영대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 위원회는 어쨌든 그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남기고요.

우리는 새만금 계획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재수립 중인 부분을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가고 김도읍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장님, 이 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김도읍 위원 그것은 관례에 따라서 전문위원과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주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주어를 넣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시는 거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소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태영 위원 잠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위원장 전용기 이의 없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윤종오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출장 위원(1인)

이건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단장 김정희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단장 신윤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직무대리 박상옥
도시계획국장 김효정
새만금개발청
차장 조홍남
기획조정관 정인권